

중학생의 소설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설 분야 분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for Classification of Fiction to Enhance to Accessibility for Middle School Students

조혜전 (Hye Chon Cho)*

정연경 (Yeon-Kyoung Chung)**

초 록

소설은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열람하고 대출하는 장서이다. KDC는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소설을 찾는 데 제한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과 서점, 출판사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설 분류의 다양한 사례와 중학생의 소설 이용 행태를 설문 조사하여 이용자 요구에 맞게 소설 분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KDC 기호에 더하여 소설의 장르별 색띠를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소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적인 사항은 중학생들의 소설 접근성과 발견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도서관이나 서점,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소설 분야 세분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Fiction is a collection that most students read and borrow in school libraries. KDC has several limitations when students look for fiction books they need. In line with this, we surveyed various cases of fiction classifications used in libraries, bookstores, and publishers and use behaviors of f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upon the result of the surveys, we proposed a better way of classifying fiction books according to user needs. In addition to the KDC number, color bands were attached according to genres so that users could easily find the desired books. These suggestions and other information will enhance the accessibility and discoverability to fiction books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may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s for fiction classification in libraries, bookstores, and publishers in the future.

키워드: 소설, 분류, 한국십진분류법, 학교도서관, 중학생

fiction, classification, 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school library,
middle school students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박사수료(hjicho@naver.com)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교수(ykchung@ewha.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8년 2월 18일 ■ 최초심사일자: 2018년 3월 8일 ■ 게재확정일자: 2018년 3월 14일

■ 정보관리학회지, 35(1), 61-82, 2018. [<http://dx.doi.org/10.3743/KOSIM.2018.35.1.06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소설은 문학류에 속하며 학교도서관의 장서에서 다른 주제의 도서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중학교 도서관의 문학류 장서구성 권장비율을 27%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3년-2015년 중학교 도서관에 주제별 입수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소설이 40.5%로 다른 주제 분야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소설은 중학생이 선호하는 독서 분야에서 41.6%를 차지하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열람하고 대출하는 자료이다(교육부, 2016).

소설은 작가의 의도와 상상력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허구적 이야기로 삶과 관련된 서사를 의미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8). 또한 소설은 심미적인 문학적 서사이며, 인간의 희로애락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감성을 풍요롭게 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성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설이 갖고 있는 자기치유적인 능력은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그들의 고민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인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은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이하 KDC)를 기반으로 자료가 분류되는데 이는 열거식 분류 체계에 속한다. 열거식 분류체계는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분류체계로 단순한 기호를 사용하고 주제의 계층적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Batley, 2014). 소설은 KDC의 문학류 아래 각 언어-형식(소설)-시대순으로 세분되는데 이러한 분류 방법은 책의 장르나 감상, 단편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 등 아주 소량의 정보만을 가지고 소설을 찾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브라우징조차도 하기 힘들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제공하는 목록은 서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도서 검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문학류 검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최석두, 2001). KDC의 문학류는 다른 류와는 달리 주제별로 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이 서가에서 브라우징을 한다고 해도 소설의 특성상 표제만으로 책의 주제나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를 찾기 힘들다. 여러 연구에서 이용자가 소설 검색 시에 서지사항보다는 내용이나 주제, 감상 등 좀 더 다양한 접근점을 가지고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한만성, 2000; 최석두, 2001; 김나름, 김태수, 2006; 오경은, 김기영, 2008; 백지원, 2010; 최지영, 2011). 이를 종합해 볼 때, 현재 국내 학교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KDC분류는 이용자 편의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소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소설 분야 분류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과 서점, 출판사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설 분류의 다양한 사례와 청소년의 소설 이용 행태를 설문 조사하여 이용자 지향의 소설 분류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향후 도서관이나 서점,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소설 분야 세분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설이 어떻게 분류되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내외 공공 도서관 및 국내 공립중학교 도서관, 온·오프라인 서점, 출판사 등이다. 연구대상으로 서점 및 출판사를 포함시킨 이유는 도서 검색과 발견성(discoverability)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용자가 도서 탐색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서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이미 서점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도서관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조사는 홈페이지 검색과 방문, 전화 및 전자 우편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소설 중 문학성이 떨어지는 라이트 노벨과 만화와 동화, 그림책은 일반 소설과 다른 분야로 판단하여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중학생의 소설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의 A중학교의 2학년이 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2월 6일부터 2월 8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122부가 수집되었다. 국어과 담당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설문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소설 접근방식과 이용행태를 파악하였다. 이렇게 도서관, 서점, 출판사의 소설 분류 현황과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도서관의 소설 분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3 선행 연구

문학류의 분류체계 개선을 논의한 연구는

Saarti(1997), 정해성(2003), Dumas(2005), 박지영(2010), 김성원(2012)에 의해 수행되었다. Saarti(1997)는 핀란드 공공도서관에서 11개의 장르 즉, 역사, 유머, 스릴러, 심리, 로맨스, 탐정, 전쟁, 공상과학, 종교, 사냥, 사회소설로 소설을 분류하여 3년간 관찰한 결과, 장르별 서가 분류가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높여주었으며 이러한 장르 분류가 이용자와 사서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정해성(2003)은 DDC가 점진적으로 열거식 분류에서 패킷 분류의 형태를 조금씩 적용하는 추세를 언급하며 열거식 분류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패킷 체계로 문학류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패킷을 각국 문학, 문학 형식, 시대, 작가, 특징·테마·대상에 따른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언어-형식-하위형식-작가-시대-특징·테마·대상으로 열거순서를 제안하였다. Dumas(2005)는 중학교 도서관에서 소설 분류를 11개의 장르, 즉 모험, 기독교 생활, 판타지, 역사, 공포, 유머, 미스터리, 연애, 사실주의, 과학, 스포츠 소설로 구분한 후, 대출량이 증가하였고 학생들 또한 이러한 장르 분류체계가 자신이 원하는 소설 접근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박지영(2010)은 문헌의 주제표현력을 높이고자 KDC를 패킷으로 재구조화하였으며 문학류를 중심으로 '시소러스 연계 패킷분류표'를 개발하였다. 김성원(2012)은 문학류 중 한국소설이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장서가 많은 현대소설의 경우는 813.6 혹은 813.7에 집중 분류되고 한국 소설류 아래 세분항목이 적어 개별 자료의 청구기호의 충분한 구별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문학-언어-형식-

시대-소설세분형식(21세기 현대소설만 세분)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별법에 있는 한국소설 세분형식 항목을 단편/역사, 전기소설/정치, 사회소설/로맨스, 연애, 애정소설 1/로맨스, 연애, 애정소설 2/추리, 탐정, 모험, 괴기, 유령, 공포소설/과학(SF), 공상, 판타지 소설/기타소설로 수정을 제안하였다.

이용자 중심의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로 오경은과 김기영(2008)은 공공도서관과 대형 서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과 대형 서점 정책 찾기가 더 편한 곳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대형 서점이 공공도서관보다 책 찾기가 더 편리하고 대형 서점의 분류가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현(2010)은 북미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장르 분류가 이용자 편의성의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분류체계임을 기술하였다. 장르가 불명확한 정의, 비선호 자료의 회피 도구로써 이용되고 특정 저자의 포괄적인 작품 탐색의 어려움, 별치로 인한 공간 부족 등의 한계점도 있지만 이용자의 자료 검색의 편의성에서 장르 분류가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지원(2011)은 이용자 중심의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해 다양한 지식체계의 주제어를 수집하고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국내 도서관의 분류에 적용하기 위해 실질적인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소설 분류에서 KDC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소설 분야의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한만성(2000), 최석두(2001), 장지숙(2006), 김나름, 김태수(2006), 백지원(2010), 최지영(2011)에 의해 진행되었다. 한만성(2000)은 한국 소설에 적합한 주제명표를

개발하기 위해 장르, 테마, 시·공간, 인물, 예비 범주를 주요 패킷으로 나누고 3개의 국내 소설에 실제로 적용해보았다. 최석두(2001)는 소설의 다양한 속성을 파악하여 서지사항, 내용, 감정 및 줄거리 검색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색인어를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소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설 검색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험하였다. 장지숙(2006)은 어린이 독서 자료 선정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으로 주제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는데 뉴베리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장르, 소재, 주인공 나이, 성별에 따라 도서를 구분하고 각각의 도서에 해당하는 주제명을 선정하였다. 김나름과 김태수(2006)는 소설에 대한 접근이 주로 기술요소와 형식요소에 국한되어 소설의 주제를 놓친다고 언급하며 소설 주제 접근체계 확장을 위해 상징과 모티프를 주제접근점으로서 제시한 후, 이 접근점을 20세기 한국소설에 적용해보고 이용성과 한계점을 논하였다. 백지원(2010)은 이용자 편의성 입장에서 DDC 분류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주제어 기반으로 분류하고 있는 미국 공공도서관 사례를 분석하여 이용과 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국내 적용 시 필요한 시사점으로 새로운 방식에 대한 도서관계의 수용성, 국내 여건 고려, 도서관 환경에 따른 적절한 유형 선택, 사서 전문직의 역할, 주제명표 개발과 이용자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최지영(2011)은 소설의 다양한 접근점을 위해 국내외 도서관과 서점의 현황과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 지향적인 소설의 접근점 확장을 저자, 장르요소, 내용요소, 감정요소, 수상작,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신간소설 등으로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소설분야에 대한 기존 분류의 한계점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설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문헌 분류체계의 재구조화하는 개선방안들이 논의되어왔는데, 이러한 연구는 주로 성인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청소년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 서점, 출판사에서 소설을 분류하는 현황과 함께 중학생들의 소설 이용 행태를 바탕으로 소설 분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도서관, 서점, 출판사의 소설 분류

2.1 도서관의 소설 분류

도서관에서 소설 분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사례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의 전농중학교 도서관, 경기도 소재 공공도서관인 교하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을 살펴보고, 국외 사례로는 일본 신주쿠중앙도서관과 에비나시립중앙도서관을 알아보았다.

국내 도서관은 모두 KDC를 기반으로 소설을 분류하고 있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경우, KDC-입수년도-입수순번호=복본번호의 순서대로 분류하고 어린이도서는 분류번호 앞에

‘아’를 표시하여 구별하였다. 청소년 자료의 경우 코너 도서, 테마 도서 등으로, 어린이 자료는 자녀교육서, 교과연계도서, 사서추천도서의 별칭 도서로 구분하고 분류기호 외에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였다. 홈페이지에서는 주제어 검색이 가능한데 검색과정은 총 3단계이며,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하위 항목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의 전농중학교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종합독서교육시스템으로 장서를 관리하며, KDC로 분류하였다. 문학 아래 언어, 그 아래 소설로 분류되었는데 국내 소설의 경우만 시대분류를 하였으며, 저자기호는 국내소설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저자기호표를 적용하였다.

교하도서관은 경기도 파주 소재 공공도서관으로, KDC에 따라 소설을 분류하였는데, 국내 고전소설의 경우만 시대구분을 하고 나머지는 시대 구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자기호는 국내저자의 경우, 저자명 전체, 해외저자인 경우는 성(姓)의 3글자만 부여하여 동명이인의 경우, 구별이 어려웠다.

느티나무도서관은 KDC로 소설을 목까지 분류하면서 시대나 장르로는 세분하지 않았다. 실제 책등에 부착하는 청구기호는 KDC의 분류기호가 아니라 저자의 첫 자음+언어별 색깔 스티커+Elord 저자기호였다. 언어별 색깔 스티커도 3가지만 적용하여 국내서는 분홍, 아시아문화권은 노랑, 서양서는 파란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였다. 아동서의 경우, 청구기호 맨 앞에 ‘아’를 표기하여 일반서와 구별하였다. 기본적으로 분류는 KDC로 하고 있었지만 청구기호는 최대한 간단하게 표기하여 이용자들의 식

별을 용이하게 하고 있었다.

일본 신주쿠 중앙도서관은 NDC를 기반으로 소설을 분류하였다. 이용자의 브라우징 시 편의성을 위해 분류번호를 좀 더 간략하게 하는데 일본 국내소설의 경우 분류기호의 숫자 앞 두 자리(91)를 제하고 그 자리에 일본의 영문 첫자인 J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 국내현대소설 분류기호의 숫자인 913.6은 J36으로 되며 그 다음 작가의 성 두 글자만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국외소설의 경우, NDC 번호 다음에 작가의 성 한 글자만을 사용하는데 아동서의 경우는 두 글자를 사용하였다.¹⁾ 국내소설의 경우는 시대구분을 하지만, 국외소설의 경우는 하지 않았다. 저자기호도 간단히 2개 문자로만 표현하여 동일한 기호에 동일한 저자의 다른 도서가 같이 배열되어 다른 도서와의 구별은 떨어지지만 기호를 좀 더 짧고 단순하게 하여 이용자 지향적인 방법으로 소설 분류를 하고 있었다.

일본의 에비나시립중앙도서관은 CCC(Culture Convenience Club)와 도서관유통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으로 CCC의 주요 사업인 츠타야의 서점 분류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설의 경우 대장르, 중장르, 소장르, 구분, 세목 등 5개의 계층으로 나누어 대장르는 국내 문예(국내소설), 역사·시대소설, 해외문예(해외소설)으로 크게 구분하고 역사·시대소설을 제외하고는 국가, 시대, 전집, 문고, 고전 등의 항목으로 다시 나누었다. 청소년 대상 소설은 아동서와 같이 별치되어 구분되었는데 아동서와 구별하여 YA소설로 구별되었다. 청구기호는 장르구분을 나타내는 3개의 숫자와 저자의 첫 문자로 나타내어 다른 도서관에 비해 좀 더 상세한 분류를 하였다.

중학교 추천도서 목록에 많이 포함되는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각각의 도서관에서 분류한 사례를 찾아보면 <표 1>과 같다. 대부분

<표 1> 중학생 추천도서의 도서관 분류 사례

도서관명	분류표	저자 기호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 저)	설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KDC	X	이843-7-553	아(아동)843(영미소설)-7(2007년입수)-553(입수순서)
전농중학교 도서관	KDC	○	843 바158ㄱ	843(영미소설) 바158ㄱ(저자기호)
교하도서관	KDC	○	843-바크	843(영미소설)-바크(저자 성)
느티나무도서관	KDC	○	843 바크R 갈	843(영미소설) 바크R 갈(저자기호)
	색띠 부착서가 배열	○	ㅂ(파랑) 바크R 갈	ㅂ(저자 첫 자음) 파랑(외국도서색갈) 바크R갈(저자기호)
일본 신주쿠중앙도서관	NDC	○	933 ㄴ*	933(영미소설) ㄴ(저자명 첫 글자)
일본 에비나시립중앙도서관	서점분류시스템	○	010 바	010(문예·문에서)해외문예)해외소설)서양소설에 해당하는 숫자3자리) ㄴ(저자명 첫 글자)

1) 일본 신주쿠중앙도서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파악하였음(2018.1.23).

이 십진분류법으로 언어와 문학형식 외의 세분은 하지 않고 있어서 영미소설 이외의 서지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검색이 가능하였다. 이용자 지향적인 분류방식으로 분류기호와는 상관없이 저자명과 색깔 스티커로 저자명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도서관이나 서점식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나 요구를 문헌분류법에도 고려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서점과 출판사의 소설 분류

국내 서점 사례로는 대형 인터넷서점인 인터넷교보, 예스24, 알라딘을 조사하였으며 해외 서점 사례로는 아마존, 丸善ジュンク堂(마루젠중크도) 서점을 조사하여 소설이 어떻게 분류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국제표준도서주제분류체계인 Thema와 북미지역 도서주제분류체계인 BISAC(Book Industry Standards and Communications) Subject Heading List, 영국의 BIC(Book Industry Communications) Subject Categories, 그리고 한국표준도서주제분류(안)에서 소설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인터넷교보, 예스24, 알라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터넷 서점으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매출 순위 1, 2, 3위를 차지한 대형 서점³⁾이다. 이들의 소설 분류는 도서관의 분류와는 매우 상이하다. 소설이라는 큰 범주 아래 하위 항목으로 세분되는 형식을 띠며 인터넷 기반으로 KDC보다 매우 다양한 접근점을 가진다. 국내

인터넷 서점의 소설 분류는 크게 국가와 장르별 구분으로 볼 수 있는데 각 사이트마다 국가와 장르가 조금씩 상이했다. 각 사이트에 공통적으로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도서, 추천도서 등으로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를 제공하였고 대상별 검색도 성인, 아동, 청소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특히 교보문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하고 있어 교보문고의 경우는 오프라인 서점의 분류도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오프라인 교보문고의 소설분류는 장르별로 구분되어있었으며 국가별, 장르별 하위로 도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문학으로 따로 구분되어 청소년문학 안에서 장르별 구분 없이 소설이 분류되었다. 또한 베스트셀러, 신간 도서 등으로도 분류되어 있었다. 소설 장르로는 로맨스소설, 판타지·SF소설, 추리·스릴러소설, 역사소설, 고전문학으로 세분되어 있었으며 한국소설, 일본소설, 외국소설 등의 국가별로도 나뉘어져있었는데 범주의 수가 적은 편이었고, 청소년소설은 하위분류가 없었다.

인터넷 교보문고의 소설 분류를 살펴보면 소설과 청소년으로 나누어 분류되어있었다. 소설은 성인서를 중심으로 국가별, 장르별, 테마, 고전소설 등으로 분류되어있었는데 국가는 한국소설, 영미소설, 일본소설, 중국소설, 러시아소설, 프랑스소설, 독일소설과 기타 나라로 분류되었다. 국가별 소설 하위 항목으로 고전소설, 소설문학선, 공포·추리소설, SF·과학소설, 판타지소설, 추리·미스터리소설, 전쟁소설, 역사소설, 로맨스소설, 무협소설, 청소년소설, 대체역

3) 매일경제신문(2017.4.27.)

〈https://bookapp.mk.co.kr/news_sub1_view.php?sc=50500019&year=2017&no=287042〉.

사(판타지)소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우화, 가족·성장소설, 감성소설, 드라마·영화소설 등 국가별로 12-17개의 장르로 나뉘었다. 장르소설은 따로 SF·과학소설, 판타지소설, 공포·스릴러소설, 추리·미스터리소설, 전쟁소설, 역사소설, 로맨스소설, 무협소설, 게임소설로 구분되어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소설은 하위구분 없이 한 범주로 분류하고 있었다. 해외도서는 언어별로 영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세분되었고 그 외에 작가별로도 소설이 검색되며 베스트셀러, 신간 도서 안내 등으로도 접근할 수 있었다. 추천도서 하위항목으로 문학상 수상작품이 분류되어있었으며 다른 인터넷 서점 사이트와 달리 주제어 분류가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예스24의 소설분류는 문학 항목 하위로 소설과 역사/장르문학, 테마소설, 고전문학과 청소년 항목 하위로 청소년 문학과 중학생 범주 아래 분류되어 있었다. 소설은 다시 국가별로 세분되는데 한국소설, 영미소설, 일본소설, 스페인중남미소설, 프랑스소설, 독일소설, 러시아소설, 이탈리아소설, 동유럽소설, 북유럽소설, 기타 국가의 소설, 작가선집으로 나누어지고, 우리나라와 영미, 일본 소설의 경우는 단편과 장편으로 다시 세분되고 그 외 다른 나라는 국가별로만 분류되었다.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문학 아래 하위분류 없이 모두 분류되어있었다. 청소년 문학 아래의 중학생 항목과 문학 아래의 고전문학에서는 소설 이외 다른 형식의 문학 작품도 섞여있었다. 그리고 해외도서는 영어, 프랑스어, 일어, 중국어로 세분되어있었다.

알라딘에서의 소설분류는 소설/시/희곡과 장르소설, 청소년, 고전, 시리즈의 중분류 아래 분

류되어있었는데 모두 다른 문학 형식과 같이 분류되어있었다. 소설/시/희곡 하위로 국가별, 장르별,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할인도서, 최고평점도서, 편집자추천도서, 신춘문예작품집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국내소설과 일본소설의 경우 각각 2000년대 전후와 1950년대 전후로 나누어 구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장르별로는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지는데 장르 및 테마는 다른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 없는 여성문학, 동물이야기 등의 항목이 있는 것이 특이하였다. 청소년은 문학과 고전 아래 다른 문학과 소설이 같이 분류되어있었는데 서양고전은 시대별 구분이 있었다. 언어별 분류로는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기타로 세분되었다.

아마존은 독자가 원하는 책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책을 검색하고 어떤 관련성을 갖고 책을 보는지 관심을 갖고 독자를 만족시키는 알고리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여기서 소설은 문학과 소설, 미스터리와 서스펜스, 로맨스, SF & 판타지, 청소년 등으로 세분되고 문학과 소설의 하위 항목으로 외국어 문학과 소설, 장르소설, 역사 소설로 분류되어있었다. 모든 카테고리 아래에는 언어별, 장르별, 형태별, 작가별, 시리즈별, 도서의 상태별, 수상작 등으로 나누어져 각 장르 아래 하위 장르가 무드나 테마, 등장인물의 직업, 지리적 지역 등으로 매우 세분되어있는 게 특징이었다. 국내 인터넷 서점과 달리 장르나 시대구분, 지역구분 등이 나누어져 청소년 소설의 경우도 세부 항목의 수는 적으나 언어별, 장르별, 형태별, 작가별, 시리즈별, 도서상태별, 수상작으로 구분되었다.

일본 전역에 52개의 점포를 가진 대형 서점 체인 丸善ジュンク堂(마루젠중크도) 서점의 소설 분류는 크게 문고 소설과 일반 소설로 나뉘었다. 문고 소설은 다시 출판사와 영화가 원작인 소설로 나뉘어 동일 출판사 내에서는 저자 성(姓)의 첫음절 순으로 배열되며 성(姓)의 첫 글자가 같을 경우 출판사에서 별도로 부여한 작가 번호 순으로 배열되었다. 일반소설의 경우 크게 성별(性別), 장르별, 시대별, 국가별, 특정 유명작가 별로 나누고, 성별에서는 일본 국내 현대소설 작가만 포함하여 저자 성(姓)의 첫음절 순으로 배열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와 같은 유명작가의 경우는 별도로 다루고 있었으며 장르 안에서는 국내와 해외로 나누고 저자 성(姓)의 순서대로 분류하고 있었다. 외국작가의 경우 성을 일본어로 변환한 후 그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장르는 미스터리, 판타지, SF, 환상문학, 경제·정치소설 등으로 나누고 시대는 일본 시대소설과 중국소설로 구분하였다. 국가는 해외작가의 소설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시아·중국·한국, 러시아·동유럽, 라틴·중동·아프리카, 북유럽·이탈리아·스페인 등의 국가로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인터넷 서점 사이트는 도서관과 달리 장르 중심의 분류를 하면서 그 외에 문학상 수상작 혹은 각 기관들의 추천도서 등 다양한 접근점으로 소설을 분류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는 시대가 소설을 분류하는 주요 요소였으나 서점 분류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서점의 분류에서 장르의 범주는 각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였지만 이용자가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장르의 소설을 선택하는데 도서관보다 접근이 용이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도

서관은 언어별로 소설이 분류되는 반면, 서점의 소설 분류는 각 서점에서 정한 장르, 국가, 주제어, 대상, 저자, 성별, 시대, 추천도서, 판형 등 매우 다양한 접근점으로 분류되었다. <표 2>는 각 서점의 분류 항목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제표준도서주제분류체계인 Thema는 국제도서시장에서 사용될 통일된 도서분류체계로 20개 필수 주제 카테고리(subject categories)에 다양한 상황과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6개의 수식자(qualifier)를 추가 결합해서 16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수식자는 지역(geographical), 언어(language), 시대(historical period), 용도(educational purpose), 흥미(interest), 스타일(artistic style)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 엄격한 계층구조를 가진 도서 분류체계를 유지하며 주제 분류와 수식자는 코드와 주제어로 구성되어 청소년 소설은 YF* 코드와 함께 반드시 연관수식자인 5A*코드(관심연령 및 수준 수식자)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북미지역 도서주제분류체계인 BISAC(Book Industry Standards and Communications) Subject Heading List는 북미 지역 도서 메타데이터에 필수적으로 1개 이상 보통 4개까지 허용하는 주제분류코드로 주제어 4,499개 코드가 54개 대분류로 분류되고 주제에 따라 2차에서 4차까지 분류되는 수직적 계층구조를 갖으며 소설 아래 152개 항목이 있으며 청소년 소설 아래 207개의 항목이 있었다. 여기서 소설 분야는 비소설 분야 주제어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과 어린이 소설/비소설은 도서 대상이 특정되어 어린이가 아닌 일반 분야 주제어에 할당하지 말 것, 연령 혹은 학년 범위를 반드시

〈표 2〉 서점의 소설 분류 항목

	교보	인터넷 교보	에스24	알라딘	아마존	중크도
국가	○	○	○	○	○	○
언어	○	○	○	○	○	○
시대	○	○	○	○	○	○
길이	-	-	○	-	○	-
장르	○	○	○	○	○	-
작가	○	○	○	○	○	-
작가의 성별	-	-	-	-	○	○
대상별	○	○	○	○	○	○
주제어	-	○	-	-	BISAC 주제검색어/ 매핑카테고리	-
신간도서	○	○	○	○	○	○
베스트셀러	○	○	○	○	○	○
스테디셀러	○	-	-	○	-	-
판형	-	-	-	-	○	○
수상작	○	○	○	○	○	○
추천도서	○	○	○	○	○	○

명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Amazon, Baker & Taylor, Barnes & Noble, Bookscan, Booksense, Bowker, Indigo, Ingram과 대부분의 주요 출판사를 포함한 북미도서산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BISAC을 사용하고 있었다. Amazon은 온라인 주제 검색어나 매핑 카테고리 사용하고 있었는데, BISAC은 Young Adult Fiction (YFA)을 12세에서 18세로 대상 연령층을, 7학년에서 12학년까지를 대상 학년으로 보고 있었다. Booknet Canada에서는 BISAC to Thema Translator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BISAC의 주제분류항목명을 입력하면 Thema의 해당하는 분류항목명을 제시해줌으로써 BISAC에 있는 주제어는 Thema 분류체계 안에 매핑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영국의 출판유통사들은 BIC subject categories를 사용하며 이를 활용하여 영국도서관 표준분류체계를 2010년까지 개발하였다. Thema와 유

사하게 아동/청소년(Children's/Teenage)으로 먼저 분류하고 그 아래에 소설을 YF Children's and teenage fiction and true stories, YFA Classic fiction, YFB General fiction, YFC Adventure stories, YFD Horror and ghost stories, chillers, YFG Science fiction, YFH Fantasy and magical realism, YFJ Traditional stories, YFM Romance and relationships stories, YFN Family and home stories, YFP Animal stories, YFQ Humorous stories, YFR Sporting stories, YFS School stories, YFT Historical fiction, YFU Short stories, YFW Comic strip fiction, YFY True stories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Thema를 국제표준도서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6)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표준도서주제분류(안)은 Thema의 주제어 대분류 20개, 총 주제어 2,712개에

〈표 3〉 소설 분류 세부 항목 비교

소설 분류 항목	한국표준 도서주제 분류(안)	Thema	BISAC	BIC	KDC6 별명
청소년/소설, 실화	2464	YF	YAF	YF	한국문학 813.6 20세기, 813.7 21세기 소설 아래 추가 세분 가능
고전소설(고대소설)	2465	YFA	009000	YFA	
소설 일반	2466	YFB	000000	YFB	
액션, 모험	2467	YFC	001000	YFC	.607 모험소설
쌍방향 모험	2468	YFCA	028000		
스릴러	2469	YFCB	062000		
범죄, 미스터리, 탐정	2470	YFCF	062000		.607 추리, 탐정소설
군대, 전쟁	2471	YFCW	067000		
공포, 유령, 괴기	2472	YFD	021000, 026000, 041000, 065000, 070000	YFD	.607 괴기, 유령, 공포소설
사변소설,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2473	YFE	015000, 061000		
SF(Science Fiction) 공상과학	2474	YFG	056000	YFG	.608 과학(SF), 공상소설
스팀펑크	2475	YFGS	060000		
판타지, 마법왕국	2476	YFH	019000, 038000, 045000	YFH	.608 판타지소설
판타지 로맨스	2477	YFHR	019000		
클래식, 전설, 신화	2478	YFJ	017000, 030000	YFJ	
종교	2479	YFK	051000		
연애, 인간관계	2480	YFM	005200	YFM	.605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
가족, 집이야기	2481	YFN	001800	YFN	
자연, 동물이야기	2482	YFP	002000, 043000	YFP	
유머	2483	YFQ	027000	YFQ	
스포츠 이야기	2484	YFR	059000	YFR	
학교 이야기	2485	YFS	054000	YFS	
역사 소설	2486	YFT	024000	YFT	.603 역사소설
단편	2487	YFU	057000	YFU	.602 단편소설
시 형식 이야기	2488	YFV	004400		
인물, 전기	2489	YFX	005000, 046000		.603 전기소설
실화	2490	YFY	YFN000000	YFY	
기타			매우 상세한 주제로 계속 세분됨		.604 정치, 사회소설 .609 기타소설

국내 전용으로 KR-C 취업, 수험서, 자격증과 KR-E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추가하고 그 안에서 청소년 소설은 2464 YF 어린이, 청소년/소설, 실화, 2465 YFA 고전소설, 2466 YFB 일반, 2467 YFC 액션, 모험, 2468 YFCA 쌍방향 모험이야기, 2469 YFCB 스릴러, 2470 YFCF 범죄, 미스터리, 2471 YFCW 군대, 전쟁, 2472 YFD 공포, 유령, 2473 YFE 사변소설,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2474 YFG SF, 2475 YFGS 스타핑크, 2476 YFH 판타지, 마법왕국, 2477 YFHR 판타지 로맨스, 2478 YFJ 클래식, 전설, 신화, 2479 YFK 종교, 2480 YFM 로맨스, 인간관계이야기, 2481 YFN 가족, 집이야기, 2482 YFP 자연, 동물이야기, 2483 YFQ 유머, 2484 YFR 스포츠이야기, 2485 YFS 학교이야기, 2486 YFT 역사소설, 2487 YFU 단편, 2488 YFV 시 형식의 이야기, 2489 YFX 인물, 2490 YFY 실화로 나누었다. 국내외 표준도서분류체계와 KDC 6판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KDC 6판에서는 별법으로 한국의 20세기 이후 소설에서만 도서관에 따라 장르를 세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청소년 소설이란 분류항목을 따로 두지 않았다. KDC는 십진식으로 계층 구조를 보여주면서 열거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므로 전개력이 무한하지는 않으나 향후 추가 전개가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도서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일부 확장 전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학생의 소설 접근방식 및 이용행태

설문조사대상인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의 A

중학교에서 2학년이 되는 중학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도서관 이용교육을 받았으며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실시로 학업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으로 일과 중에 독서의 기회가 많았다. 학교는 학생들의 독서생활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주 1회 국어 시간에 도서관 이용수업을 하며, 각 반마다 학급문고가 비치되어있었으며 아침조회시간에 '아침독서'를 실시하여 다양한 도서를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학기 초에 교과별 권장도서 목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도서 선정에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학교도서관 사서는 학생들이 소설을 읽을 때 정확한 서명이나 작가를 알고 도서관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읽고 싶어 하는 소설에 대한 명확한 정보 없이 막연히 서가를 둘러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27개가 수거되었으며 입력 오류 등으로 판독 불가한 5개를 제외하고 남자 58명, 여자 64명, 총 122명의 설문 결과가 수집되었다.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 빈도는 <표 4>와 같다. 주 1회 국어시간에 도서관 이용수업을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67.2%의 학생이 수업시간 외에도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거의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도 수업시간에 자신이 읽을 책을 고르고 읽는 시간이 있어 별도로 시간을 내서 가지 않을 뿐,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국어선생님과 면담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학교도서관 이용수업 외에 한 달에 1번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빈도는 53.2%를 차지하여 과반수가 꾸준히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

〈표 4〉 학교도서관 이용 빈도

(단위: 명(%))

성별	주 1회	주 2-3회	주 4-5회	한 달 1-3회	한 학기 1-2회	거의 가지 않음
전체(%)	14 (11.4)	16 (13.1)	7 (5.7)	28 (23.0)	17 (13.9)	40 (32.8)
남자(%)	6 (10.3)	6 (10.3)	5 (8.6)	19 (32.8)	4 (6.9)	18 (31.0)
여자(%)	8 (12.5)	10 (15.6)	2 (3.1)	9 (14.0)	13 (20.3)	22 (34.4)

〈표 5〉 소설 독서량

(단위: 명(%))

성별	주 1권	2주에 1권	한 달1권	한 학기 1권	1년 1권	거의 읽지 않음
전체(%)	43 (35.2)	18 (14.8)	22 (18.0)	17 (13.9)	8 (6.6)	14 (11.5)
남자(%)	24 (41.4)	5 (8.6)	11 (19.0)	6 (10.3)	5 (8.6)	7 (12.1)
여자(%)	19 (29.7)	13 (20.3)	11 (17.2)	11 (17.2)	3 (4.7)	7 (10.9)

되었으며 주 1회 이상 가는 경우도 30.2% 이상을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는 소설의 독서량에 관한 질문인데 주 1권을 읽는 학생이 남녀 모두 가장 많았다. 한 달에 1권 이상 읽는 경우가 68%를 차지하여 과반수가 꾸준하게 소설을 읽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 1권 이상을 읽는 경우도 35.2% 이상을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소설의 독서량이 많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주 1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남학생 41.4%, 여학생 29.7%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온 소설의 접근점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국가, 길이, 수상작, 시대1, 시대2, 교과연계, 언어, 인물, 작가, 장르, 장소, 제재, 추천서평, 출판년도, 기타 중에서 소설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순위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시대의 경우, KDC에서 사용하는 작가의 활동 시대를 시대1,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시대2로 나누었으며 중학생을 위한 교과연계 요소와 추천 도서나 수상작도 각각의 요소로 추가하였다. 이 외에 다른 선정 요소에 관한 의견을 기타 항목으로 추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소설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핵심적 요소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학생들은 소설의 '장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설의 제재와 길이가 학생들의 소설 검색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길이'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이유는 학생들의 면담에서 알 수 있었는데 소설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서사에 대한 기대가 있어 장편을 선호하였으며, 책임기를

〈표 6〉 소설 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

(단위: 명)

요소	국가	길이	수상작	시대 1	시대 2	교과 연계	언어	인물	작가	장르	장소	제재	추천 서평	출판 년도	기타	
1 순위	총	9	6	0	3	0	4	3	1	4	64	0	21	3	0	2
	남	3	5	0	2	0	3	3	1	2	27	0	9	1	0	0
	여	6	1	0	1	0	1	0	0	2	37	0	12	2	0	2
2 순위	총	1	11	5	6	1	2	1	10	4	20	12	35	11	0	1
	남	1	8	4	6	0	0	0	8	1	11	8	5	3	0	1
	여	0	3	1	0	1	2	1	2	3	9	4	30	8	0	0
3 순위	총	3	25	2	5	3	0	3	16	10	10	5	21	16	2	0
	남	2	8	2	4	3	0	2	12	5	3	2	10	4	0	0
	여	1	17	0	1	0	0	1	4	5	7	3	11	12	2	0
4 순위	총	5	17	3	20	1	2	6	18	12	8	11	10	7	1	1
	남	2	6	3	8	1	2	2	6	5	4	4	9	4	1	1
	여	3	11	0	12	0	0	4	12	7	4	7	1	3	0	0
5 순위	총	8	14	3	11	3	7	7	14	14	3	10	7	13	8	0
	남	5	1	1	5	2	3	4	7	7	2	6	4	7	4	0
	여	3	13	2	6	1	4	3	7	7	1	4	3	6	4	0

〈표 7〉 소설 선택 시 핵심 요소

(단위: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전체	장르 24.8	제재 18.5	길이 10.9	인물 7.9	추천 서평 7.4	시대1 5.8	작가 5.7	장소 5.3	국가 4.2	언어 2.6	교과 연계 2.2	수상작 1.9	시대2 1.0	출판 년도 0.9	기타 0.9
남자	장르 23.3	제재 13.8	길이 11.1	인물 10.8	시대1 7.9	장소 6.1	작가 5.4	추천 서평 5.2	국가 4.0	수상작 3.4	언어 3.4	교과 연계 2.6	시대2 1.5	출판 년도 0.7	기타 0.7
여자	장르 26.1	제재 22.7	길이 10.7	추천 서평 9.4	작가 6.0	인물 5.3	장소 4.5	국가 4.4	시대1 4.0	언어 1.9	교과 연계 1.8	출판 년도 1.0	수상작 0.6	시대2 0.5	기타 1.0

싫어하는 학생의 경우는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낼 의욕이 없어 단편을 선호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남녀별 설문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1순위부터 3순위까지는 동일한 설문결과를 보였으며 4순위로 남학생의 경우 인물, 여학생은 추천서평을 선택하였다. 5순위로는 남학생은 작가의 활동 시대를, 여학생은 작가를 선택하였는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주위의

평가나 추천에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타의견으로는 책표지와 제목, 재미로 소설을 고른다고 밝혀서 책 디자인이나 제목이 중학생들의 시선을 끄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이 선호하거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 그 소설에 담겨있는지를 표지나 제목으로부터 빨리 확인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었다.

성인들이 소설을 검색할 때 고려하는 주된 요

소 중 하나인 수상작은 고려하는 요소로 거의 선택하지 않았는데, 수상여부가 소설에 대한 흥미나 독서 욕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KDC에서 주요 분류 기준인 언어와 시대는 설문 조사결과 하위에 머물러서 현재 중학교 도서관의 소설 분류 기준이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음이 파악되었으며 시대의 경우, 작가의 활동 시대를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보다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연계의 경우도 소설을 검색하는 데 하위 순위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소설을 읽을 때, 학업이나 시험과는 크게 연관시키지 않고 문학적인 접근 즉, 서사에 대한 흥미나 기대로 읽게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4. 중학교 도서관의 소설 분류 개선안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학교 도서관에서 KDC로 소설을 분류할 때, 중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서관, 서점, 출판사의 소설 분류 현황 분석과 함께 실제 이용자인 중학생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소설 분야 분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중학생들이 소설 선택 시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조사된 '장르'는 선행연구와 현황 조사에서도 소설 분류에 있어서 제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요소로 언급된 경우가 많았다. 최석두(2001)는 소설의 장르 요소를 확장시켜서 소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 수준을 향상시켜야하며 이를 위해 서점과 도서관에서 장르 요소를 사용하여

소설을 검색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된 다양한 장르 요소를 소설의 접근점으로 확장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에 장르의 유형이 KDC 6판에 충분히 반영되어있는지를 확인한 후, KDC 6판에서 제시되어있는 소설의 별법을 기본으로 하여 장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KDC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에서 바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학생들의 소설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장르 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숫자나 기호가 아닌 특정 색깔 코드로 색띠를 책등에 부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분류표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소설을 시각적으로 쉽게 구별하여 찾을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세분이 필요한 경우, 다른 색깔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기존 분류번호에 숫자나 기호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색띠로 실제 이용자들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였다.

소설 분류에 사용될 색띠는 일반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무지개 색깔 7가지에 분홍색을 추가하여 8가지 색으로 하였다. 무지개 색깔로 선정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무지개 색은 대부분 사람들이 색깔 순서를 암기하고 있으므로 중학생 이용자들이 기억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기성 측면에서 선정하였다. 그 순서도 KDC 6판의 별법의 순서와 같게 모든 세분 형식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그 결과, 단편소설은 빨간색, 역사, 전기소설은 주황색, 정치, 사회소설은 노란색, 로맨스, 연애, 애정 소설은 초록색, 추리, 탐정, 모험소설은 파란색, 괴기, 유령, 공포소설은 남색, 과학(SF), 공상소설은 보라색, 판타지 소설은 분홍색을 사용

하는 것으로 하였다. 추리, 탐정, 모험 소설과 괴기, 유령, 공포소설을 분리한 것은 KDC5에서 세분되었던 소설의 세분 형식이기도 했지만, 국제표준도서주제분류에서 액션, 모험 소설과 공포, 유령, 괴기 소설을 독립된 중분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고 추리와 탐정 소설은 액션, 모험 소설의 하위 항목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판타지 소설을 과학(SF), 공상소설과 따로 분리한 이유는 국내의 표준도서주제분류에서 판타지 소설을 독립된 중분류 항목으로 다루고 판타지 소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기타 소설은 색깔 표시가 불필요해서 색깔 스티커를 부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이러한 색깔 코드를 책등에 색띠로 부여함으로써 중학생들은 훨씬 더 쉽게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빨간색 색띠는 학생들이 소설을 고를 때 중요한 선정 요소의 하나로 나타난 소설의 길이를 표현해 주는 것으로, 해당 자료가 단편 소설임을 바로 알 수 있

다. 단편소설의 경우, 단편 한 편만 수록된 소설보다는 여러 단편이 합쳐진 단편집이 대부분이므로 학생들이 서가를 브라우징할 때 길이에 대한 정보를 색깔로 보여주면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하다.

주황색의 역사, 전기소설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로 인물의 이야기도 역사적인 사실 위에 구성된 소설로 보고 여기에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바탕으로 서술된 소설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 현대문학에 전후소설, 분단소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둔 전쟁소설, 전후소설, 분단소설, 가족사소설, 연대기소설, 실화소설, 인물소설, 자전소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대체역사소설은 실제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지만 내용이 실제와 다른 소설을 일컫는데 이 역시 실제 역사를 소설의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 분류한다. 종교적인 요소가 포함된 소설도 대부분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물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사, 전기소설과 함께 분류한다.

<표 8> 소설 분류 세부 형식과 색깔 코드

색깔 코드	장르	KDC5 별법	KDC6 별법
빨간색	단편소설	.602	.602
주황색	역사, 전기소설	.603	.603
노란색	정치, 사회소설	.603	.604
초록색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	.604	.605
파란색	추리, 탐정, 모험소설	.605	.607
남색	괴기, 유령, 공포소설	.606	.607
보라색	과학(SF), 공상소설	.607	.608
분홍색	판타지소설	.607	.608
무색	기타소설	.608	.609

노란색의 정치, 사회소설은 정치나 사회적인 현상을 다룬 소설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소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세태소설, 패러디, 풍자 소설도 이 장르로 분류한다. 초록색은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을, 파랑색인 추리, 탐정, 모험 소설을, 남색은 괴기, 유령, 공포소설을, 보라색은 과학(SF), 공상 소설로 하고 의학소설도 과학(SF), 공상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판타지소설은 분홍색으로 하고, 기타 소설은 색깔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현재 중학교 도서관의 소설 분류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적인 요소가 색깔코드로 표현되어 실제 이용자인 중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손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책등에 붙일 색띠는 8가지 색깔 코드를 기본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이용자들의 요구와 새로운 장르의 소설이 증가하면, 새로운 색깔을 하나씩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소설의 세분 형식이 2개 이상 적용 가능한 경우, 각각의 색띠를 KDC 별법의 세분 형식 번호 순서와 그 다음에 추가된 색깔의 순서대로 부착할 수 있다. 복수의 색깔코드를 통해 보다 많은 관점의 상세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역사소설이면

서 정치소설인 경우, 주황색띠와 노란색띠를 순서대로 책등에 붙여 소설의 주제를 더 상세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청구기호 외에 복수의 색깔코드를 줌으로써 이용자들이 소설에 접근하고 선택하는데 있어서 풍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색깔을 통한 소설의 세분은 유사한 형식의 소설과 상이한 형식의 소설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복잡하게 길어지는 분류기호의 합성보다 조기성이 높을 수 있으며 색깔은 십진이란 숫자의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차별화된 색깔을 부여함으로써 훨씬 더 많이 구분해 나갈 수 있다. KDC 별법의 세분 형식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해당 세분 형식의 색띠를 부착하면 되고, 자관만을 위한 추가적인 특화된 세분 형식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색깔의 사용을 결정해서 부착하면 된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색깔 스티커의 사용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주제명 표목을 3-4개로 권고하는 것과 같이 제한함으로써 최대한의 분류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안된 소설 분류의 세분 방식을 바탕으로 A 공립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소설 1위부터 3위까지 분류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중학교 도서관의 소설 분류 개선안 적용 사례

소설 분류의 장르 세분	서명/저자	KDC6	중학교 도서관 소설 분류 개선안 적용
	해리포터 시리즈/J. K. 롤링	843 (영미)	843+보라색(과학(SF), 공상)+분홍색(판타지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히가시노 게이고	833 (일본)	833+무색(서사주제소설)	
홍길동전/허균	813 (한국)	813+주황색(역사소설)+노란색(정치, 사회소설)	

5. 결론

중학교 도서관에서 소설은 도서관의 장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열람하고 대출하는 자료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에서 소설분류는 문학류 아래 각 언어-형식(소설)-시대순으로 세분되어 학생들이 원하는 소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의 소설 접근성 증진과 발견성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독서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소설 분야의 분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소설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일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와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 서점, 출판사의 소설 분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중학생의 소설 접근 방식 및 이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이 서울 소재 중학교 한 곳의 한 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이 연구의 목적이 이용자들의 소설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기호와 요구를 파악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중학생들이 소설을 고를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3가지 요소로 장르와 제재, 길이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밝혀진 소설 장르를 바탕으로 한 소설 분류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다양한 기관의 소설 분류 현황과 KDC 한국 현대 소설의 별법을 바탕으로 소설 장르의 9개 세분 형식을 단편소설, 역사/전기소설, 정치/사회소설, 로맨스/연애/애정 소설, 추리/탐정/모험 소설, 괴기/유령/공포소설, 과학(SF)/

공상소설, 판타지 소설, 기타 소설로 정하였다. KDC 6판에서는 한국 현대소설 별법에 따라 소설 장르를 숫자로 부가하여 전개할 수 있는데, 분류 번호가 길어지면 조기성이 떨어져 식별이 어렵고 간략 분류가 자료 정리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에서는 전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8개의 색깔을 각 세분 형식에 할당하고 이러한 색띠를 책등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소설의 장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색띠의 활용은 기호나 번호보다는 식별하기 쉽고 복수의 세분형식을 부가할 때에도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국내외 소설 분류 현황 분석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소설의 다양한 세분형식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세분 형식은 추후 해당 형식에 관한 독자 요구와 관련 장서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색깔 스티커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류체계 개선안이 분류번호의 추가적인 전개를 중심으로 제시되어왔으나 이제는 대상층에 따라 이용자 지향적인 관점에서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색깔 분류 코드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의 경우, 책의 발견 채널이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도서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서점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구매 도서의 발견 채널이 도서관인 경우, 도서관의 서가에서 발견(55.4%)이 도서검색대의 키워드 검색(2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미래출판전략연구소, 2015). 그러므로 소설 분류에서 색띠의 활용은 책의 발견성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선택 가능성을 한 차원 높여줌으

로써 독서 가능성을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학생의 독서 수요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개별 독자에 맞는 책을 추천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학생들의 소설 접근 및 이용 행태 전반에 걸친 조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하여 이용자 지향적인 분류 개선안을 마련하고 분류 코드로서 색띠 활용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독자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류 개선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출판유통산업분야의 표준도서주제분류체계의 지속적인 개발과 표준화는 도서관의 문헌분류체계보다 훨씬 더 빨리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도서주제분류는 출판 산업 파트너간의 주제 정보

전달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적절한 책을 찾는 고객에게 세분화된 검색의 접근점으로 사용되고 유사한 도서의 배치로 판매를 촉진하며 서지 정보 구축과 교환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출판 산업계의 도서주제분류체계의 권위와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산업통계, 산업 표준의 기능과 같은 부가적인 역할로 확장되고 있어서 도서관에서도 정보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동향에 관심을 갖고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도서관의 분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의 문헌분류표가 도서관 장서를 정리하기 위한 표준을 넘어 도서의 유통에서도 중요한 도서분류체계로 활용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6).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실태조사 및 장서관리지침. 충남: 공주대학교.
- 김나름, 김태수 (2006). 소설 주제 접근체계의 확장 연구: 상징과 모티프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3(4), 69-87. <http://dx.doi.org/10.3743/KOSIM.2006.23.4.069>
- 김성원 (2012) 한국십진분류법(KDC) 한국소설항목의 세분방안에 대한 연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57-78.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057>
- 노지현 (2010). 장르 분류의 사례를 통해 본 도서관 분류의 의미: 북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151-170.
- 미래출판전략연구소 (2015). 독자의 도서발견 채널과 국내의 책의 발견성 강화 동향.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박지영 (2010). 시소러스를 연계한 문학류 패킷 분류체계 개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3), 77-89.
- 백지원 (2010). 주제어 기반 분류에 관한 연구: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179-201.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4.179>

- 백지원 (2011). 이용자 중심의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한 주제명 개발에 관한 연구: 지식조직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8(1), 171-193.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1.171>
- 오경은, 김기영 (2008). 문헌분류방식에 따른 도서탐색용이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4), 25-42. <http://dx.doi.org/10.3743/KOSIM.2008.25.4.025>
- 장지숙 (2006). 뉴베리 수상작 주제 분석을 통한 어린이 독서자료 선정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63-79.
- 정해성 (2003). 문학류를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2), 273-296.
- 최석두 (2001). 이용자기향 소설검색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연구. 지식처리연구, 2(2), 1-38.
- 최지영 (2011). 소설의 접근점 확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 국내도서분류체계 표준화 방안 연구.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만성 (2000). 한국소설 주제색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Batley, S. (2014). Classification in the theory and practice (2nd ed.). Oxford: Chandos.
- Dumas, E. P. (2005). Give'em what they want! Reorganizing your fiction collection by genre. Library Media Connection, 24(2), 20-22.
- Saarti, J. (1997). Feeding with the spoon, or the effects shelf classification on fiction on the loaning of fiction. Information Service and Use, 17, 159-169.

[웹 사이트]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7, November). Classification of Fiction. Retrieved from <https://www.nlcy.go.kr/menu/12110/program/50009/searchSimple.do>
- 교보문고 (2017, November). Classification of Fiction. Retrieved from <http://www.kyobobook.co.kr/categoryRenewal/categoryMain.laf?linkClass=01&mallGb=KOR&orderClick=daa>
- 교하도서관 (2018, January). Classification of Fiction. Retrieved from <http://www.pajulib.or.kr/ghlib/search/search.aspx>
- 느티나무도서관 (2018, January). Classification of Fiction. Retrieved from http://www.neutinamu.org/sub/sub_04.html?mNum=0
- 신주쿠 중앙도서관 (2018, January). Classification of Fiction. Retrieved from <https://www.library.shinjuku.tokyo.jp/WebOpac/webopac/selectsearch.do?searchkbn=2&histnum=1>
- 알라딘 (2017, November). Classification of Fiction. Retrieved from http://www.aladin.co.kr/shop/wbrowse.aspx?CID=1&start=we_header
- 에비나시립중앙도서관 (2018, January). Classification of Fiction. Retrieved from

- https://ebina.city-library.jp/library/ja/library_search/conditions
예스24 (2017, November). Classification of Fiction. Retrieved from
<http://www.yes24.com/24/Category/Display/001001017001>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서울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전농중학교 (2018, January). Classification of Fiction.
Retrieved from <http://reading.ssem.or.kr/r/reading/search/schoolSearchForm.jsp>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8, January). Definition of Fiction.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7709&cid=46645&categoryId=4664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January). Retrieved from <http://www.kpipa.or.kr>
Amazon (2017, November). Classification of Fiction. Retrieved from
https://www.amazon.com/books-used-books-textbooks/b/ref=nav_shopall_bo_t3?ie=UTF8&node=283155
Book Industry Communication (2018, January). Retrieved from <http://www.bic.org.uk>
Book Industry Study Group (2018, January). Retrieved from
<http://bisg.org/page/BISACSubjecCode>
Booknet Canada (2018, January). Retrieved from
<http://www.booknetcanada.ca/classification-schemes/>
EDiTEUR (2018, January). Retrieved from <http://www.editeur.org>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Baek, Ji-Won (2010). Analysis of word based classification of U.S. public libraries and its impl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179-201.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4.179>
Baek, Ji-Won (2011). A study on construction of subject headings for the word based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1), 171-193.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1.171>
Book Trade Promotion (2016). A study on standardization method of Korean book classification system. Jeonju: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Choi, Ji Young (2011). A study of expanding access points for fiction. A master's thesis in Ewha Womans University.
Choi, Sukdoo (2001). A study on under-oriented fiction retrieval system design. *Journal of Knowledge Processing and Management*, 2(2), 1-38.

- Chung, Hae-Sung (2003). A study on the proposed faceted scheme for literatur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2), 273-296.
- Han, Mahn Soung (2000). A study on subject indexing of Korean fiction. A master's thesis in Yonsei University.
- Institute of Future Publishing Strategy (2015). The discovery channel of the readers and the discovery strength of domestic and foreign books. Jeonju: Korea Publishing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 Jang, Ji-sug (2006). A study on selection efficiency scheme in children's books through subject analysis of the Newbery medal winner's book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1), 63-79.
- Kim, Na-Reum, & Kim, Tae-Soo (2006). A study on enhancing subject access to fiction focused on symbol and motif.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4), 69-87. <http://dx.doi.org/10.3743/KOSIM.2006.23.4.069>
- Kim, Sungwon (2012). A research on close classification for Korean fiction in KDC: Focusing on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3), 57-78.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057>
- Ministry of Education (2016). A survey on school archives with a research on their guidelines (including criteria for material selection). Chungnam: Kongju National University.
- Oh, Kyong-Eun, & Kim, Gi-Yeong (2008). A study on the convenience in finding books according to classifications: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s in public libraries and booksto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4), 25-42. <http://dx.doi.org/10.3743/KOSIM.2008.25.4.025>
- Park, Ziyoun (2010). Developing a faceted classification scheme integrated with a thesaurus for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3), 77-89.
- Rho, Jee-Hyun (2010). The meanings of genre classification in library classification: the case of Americ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151-170.